

전남도, '청정·힐링·안심'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신안 씨원리조트 18일 부분 개장 객실 415실·부대시설 우선 준공 내달부터 일반인 대상 정상 운영

전남도는 신안 자은면에 들어서는 라마다프라자 & 씨원리조트가 오는 18일 부분 개장하는 등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현재(1만여실)보다 6,000여실(66%)을 확충한다

이번에 개장하는 라마다프라자 & 씨원리조트는 신안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2019년 4월 개통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숙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치한 명품 숙박시설이다. 전남지역 기업인 ㈜지오그룹이 자은면의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백길해수욕장 인근에 조성 중이다. 2019년 11월 객실 533실 3동 9층 규모로 착공했으며 이 가운데 객실 415실과 부대시설을 우선 준공했다. 6월까지 시범숙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 리조트를 중심으로 인근 54만㎡ 규모에 총 8,300억 원을 들여 휴양펜션단지, 전원 휴양시설, 마리나 등을 갖추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이 휴식과 오락을 즐기는 자은해안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리조트까지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양호해 무안공항과 KTX목포역에서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관광인구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된다.

리조트 인근 약 15분 거리에는 세계조개박물관, 1004수석 전시관 등 특색있는 테마로 꾸며진 '1004 뮤지엄파크'가 있고, 30분 거리의 안좌면에는 유네스코관광기구가 2021년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지정한 '퍼플섬' 반월도·박지도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전남도는 풍부한 관광명소를 기반으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 631실이었던 명품관광숙박시설을 2025년까지 66% 늘어난 1만 7,617실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수헬리콥터파크 등 6개소의 관광

단지를 조성 중이고, 광양 구룡산 관광단지, 고흥 예술랜드관광단지 등 3조 91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단지 5개소를 조성 예정에 있어 호텔·리조트, 풀빌라 등 고급 숙박시설 6,986실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라마다프라자 & 씨원리조트 자은도가 진도 대명리조트와 함께 신안과 전남 서남권의 중요한 체류형 관광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명품 숙박시설을 확보해 청정·힐링·안심 전남관광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세계화 '박차'

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남도가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간직한 남도음식 산업화 및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인 경희대 산학협력단, 시군 담당과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수행기관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과업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과 성공개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규민 경희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남도음식의 특징 및 경쟁력 ▲국제행사 승인사례 분석 ▲국제행사 정체성 확보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전효진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음식관광 1번지인 전남의 대표 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및 국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된 국제행사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자료와, 남도음식 국가 브랜드화 로드맵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은 빼어난 손맛과 깊은 정성이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인 남도음식의 산업화와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해 남도음식을 통한 케이푸드 세계화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28회째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국제관을 신설하고, 관람객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오는 10월 7일부터 3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길용현 기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개발과 성공개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건설공사 현장점검 마무리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광주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진행해 온 긴급현장조사단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9일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로 긴급현장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 등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20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긴급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과 164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기술사가 참여해 건설현장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202개소 건설현장 중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현장과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제외한 총 1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부적정 ▲

품질관리(시험)계획 이행 부적정 ▲감리원 배치 부적정 등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는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점검 지적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건설현장 관리 매뉴얼'과 자치구별 통일된 '협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인·허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와 건설현장에 배포한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주철현,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올해 연말로 임일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담 조세특례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로 임일이 도래해 농어업 분야의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낱일이 악화되는 도

·농산 소득격차 심화와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업 발전을 이어갈 후계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윤 기자

윤재갑 "정부, 쌀 가격 안정 시장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의원은 8일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당장 18만톤 시장격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불과 6개월전, 5만 6,803원(20kg 기준)이던 쌀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지금은 4만 6,538원으로 지난해 대비 20%가량 폭락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때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낙찰방식'을 2차례나 고수하면서 쌀 가격 폭락을 부추긴 셈이다"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 가격 폭락"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생산비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 곧, 쌀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과 식량안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도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직접 농업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쌀 시장격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조속히 18만 톤의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몰치농민 광주 최고 수준의 PARP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몰치농민 광주 최고 수준의 PARP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00㎡ 공간

B1F_BOWLING
고급스탠드 20라인이 넘는 24라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2-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리4로 192(차량동) 구, 상무리2천번선체당동